

- 주요 뉴스: 6월 FOMC 개최 예정,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 신호 발신 여부에 주목
 - WTO 사무총장, 세계는 전례 없는 다중위기에 직면
 -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 검토
 -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완만하고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중립금리 도달 필요
 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5.1%], 달러화 강세[+2.0%], 금리 상승[+22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경기침체 및 기업실적 둔화 우려 등이 원인
 유로 Stoxx600 지수는 매파적인 ECB 통화정책회의 등으로 4.0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매수 증가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9%, 2.6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예상 등이 반영
 독일은 ECB의 7월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24bp 상승
-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2.1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6/10일	6/3일	전주말대비			6/10일	6/3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3,900.9	4,108.5	-5.05%	국채 금리 10y	미국	3.16%	2.93%	22bp
	유럽	422.71	440.09	-3.95%		독일	1.52%	1.27%	24bp
	중국	3,284.8	3,195.5	2.80%	CDS 5y	한국	48bp	46bp	2bp
	일본	27,824	27,762	0.23%		중국	76bp	71bp	5bp
	한국	2,595.9	2,670.7	-2.80%	위험 지표	EMBI+	403	377	26bp
환율	달러지수	104.15	102.14	1.97%		VIX	27.75	24.79	11.94%
	유로화	1.0519	1.0719	-1.87%		WTI유	120.67	118.87	1.51%
	엔화	134.41	130.88	-2.63%	원자재	구리	429.5	447.2	-3.97%
	위안화	6.7091	6.6603	-0.73%		금	1,871.6	1,851.2	1.10%
	원화	1,268.9	1,242.7	-2.06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6월 FOMC 개최 예정,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 신호 발신 여부에 주목

- 6/14~15일 예정된 FOMC에서 5월에 언급되었던 0.5%p 금리인상이 확실시. 다만 시장의 초점은 연준이 이전보다 강력한 통화긴축 신호를 보낼 것인지 여부. 이 외에 향후 경제전망과 개별 위원의 금리인상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 등도 관심사
- 5월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이 40년래 최고치를 나타냈기에, 통화긴축 강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. 구체적으로 7월과 9월 각각 0.5%p 인상 신호 발신 또는 7월 0.75%p 인상 가능성 제시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
- 다만 일부에서는 5월 연간 근원 CPI 상승률(6.2%)이 전월(6.0%) 대비 하락했기에 특별한 긴축 강화 신호 없이 향후 통화정책은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주장
- 점도표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내년 연방기금금리(FF)가 3.0~3.5%까지 상승하고, 이후 연말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. 향후 경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하지만, 성장률 전망은 하향(또는 실업률 전망 상향) 조정할 것으로 추정
- 한편 파월 의장은 이번에도 단기적 관점에서 아직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피력할 소지. 다만 JPMorgan Chase의 Bruce Kasman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안정을 추진하면 결국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WTO 사무총장, 세계는 전례 없는 다중 위기에 직면

-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세계가 연이어 코로나 팬데믹, 러-우 전쟁,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발언. 한편 이번 주 열리는 WTO 회의에서 식량 안보 대응 방안, 코로나 팬데믹 종료와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방향성, 수산보조금 관련 협상 등을 진행할 방침

■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 검토

- 라우즈 위원장은 석유 정제 능력 확대 등을 통해 휘발유 공급을 늘려 에너지 가격 억제를 유도하겠다고 발언. 또한 이를 위해 관련 에너지 기업들과의 협력에 나서고,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첨언

■ 미국 5월 재정수지, 적자 규모는 큰 폭 감소. 코로나 팬데믹 완화 등에 기인

- 5월 재정수지는 660억달러 적자로, 전년동월비 50% 감소.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면서 정부 지출이 감소한 반면, 정상적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정부 수입은 증가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완만하고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중립금리 도달 필요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중립금리가 1%와 2% 사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. 금리인상 과정에서 금융 분절화(fragmentation: 중심국과 주변국 간 구조적 차이로 조달비용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)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,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
-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회의 관련하여 7월은 0.25%p 금리인상이 적절하지만 9월의 경우 0.50%p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발언. 고물가가 장기화되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지적
- 라트비아 중앙은행 카자크스 총재도 역내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, 고물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

■ 중국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, 14개월래 최저.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동일

- 통계국에 따르면, 5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6.4% 올라 전월(8.0%) 대비 큰 폭 하락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.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.1% 상승하여 예상치(2.2%) 하회하며 4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
- Capital Economics의 Sheana Yue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금년 말까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. 이에 당국에서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

■ 중국 베이징시,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. 학생들의 정상 등교 시기를 연기

- 6/12일 신규 감염건수가 33건을 기록. 상하이 경우 6/11일 29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시내 식당 영업을 금지.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6/13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브레이너드 부총재 강연, 영국 4월 산업생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전략, 물가상승 지속 등으로 복잡한 상황에 직면 - WSJ

(Sizzling Prices Complicate Fed's Inflation-Fighting Strategy)

-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6월 FOMC에서의 0.75%p 인상 가능성을 제시. 그러나 구두개입 만으로 시장금리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, 이러한 방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
- 다만 그 동안의 연준의 행태를 고려한다면 포워드 가이드를 통한 의사소통 등으로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필요한 정책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. 한편 금리인상 종료 시점 결정이 서서히 연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

■ 일부 유로존 국가의 부채문제, 금리상승 여파로 심화될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Rate rise prospects raise concerns for debt-laden eurozone countries)

- ECB는 최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7월 자산매입 중단 및 0.25%p 금리인상 등을 예고. 이후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'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채 비율이 높은 일부 유로존 국가에 대한 시장 우려가 증대
- ING의 Antoine Bouvet은 아직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2.25%인 독일과 이탈리아 간 수익률 스프레드가 2.5% 이상으로 확대되면 ECB에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예상. 또한 완만한 스프레드 확대는 ECB에 잘못된 안도감을 제공할 우려

■ 미국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, 물가의 자기실현적 특성이 위험 요인 - 블룸버그

(Inflation Finally Drives a Stake Through 'Transitory')

■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, 정부통제 강화 경제체제의 회귀를 촉진 - Financial Times

(Economic thinking is at a crucial inflection point)

■ 미국 허리케인 기간 정유생산 감소, 세계적 정제석유 수급에 타격 가능성 - 블룸버그

(US Hurricane Season Will Be Felt Around the World This Year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